# 농어촌공사, 9월 5급 정규직 386명 뽑는다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공기업 하반기 채용 윤곽 한전 560명·한전KPS 100명·한전KDN 40명 등 지역인재 18% 의무화…광주·전남 취준생 '숨통'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 관·공기업들의 올해 하반기 공개채용 일정 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이전 공공기관 에 대한 지역인재채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취업준비생들의 관심과 기 대도 높아지고 있다.

21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어촌 공사는 최근 '5급 신입사원 채용 사전예 고'를 공지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 니지만 행정분야 113명, 전산일반 5명, 토 목 135명, 지질 5명, 기전 123명, 환경 5명 등 하반기 공채로 386명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식 모집공고는 이달 말 또는 9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전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시행에 따라 채용분야별로 채용인 원의 18%를 최종학력 학교 소재지가 광주 ·전남지역인 지원자를 채용하게 된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하반기 채용일정도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9월 말께 채용공 고가 나온 뒤 10월 말 필기시험을 치룰 가 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전 공기업 중 신규채용 규모가 가장 큰 한국전력공사는 하반기 채용인원 규모 가 올해 상반기 공채와 비슷한 560여명 수 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월 말 채 용공고를 내고 10월 말께 필기시험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KPS도 대략적인 하반기 공채 일정 이 나온 상태다. 올해 하반기 공채 규모는 100명 내외로, 한전KDN 역시 올 하반기 40여명을 신규채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두 기관 모두 한전과 비슷한 일정으로 9월

말께 채용공고를 낸 뒤 10월 말 필기시험 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전KDN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 규직 전환을 위해 160명을 공개채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구직 자의 공정채용을 고려해 기존 기간제근로 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 기간제근로자 중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서 의결한 160명에 대해 1차 전형 면제, 2 차 전형 10% 가점, 3차 전형 5% 가점을 제공한다. 전체 채용 인원 160명 중 40% (64명)는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선발하는 채용할당제를 동시에 적용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올해하반기 공채로 무선국검사 9명과 국가유공자 4명 등 13명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 원도 이달 중 공고를 내고 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신입직원 2명을 채용, 오는 10월에 도 채용형 인턴 (10명 내외 예상) 채용공고 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도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채용규모는 확정되지 않 은 상태다.

이처럼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하반기 공채 시즌이 다가오면서 지역 취업준비생 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상 반기 이전 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18%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하반기 채 용 때 지역인재 채용을 늘릴 것이라는 예 상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 리오'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12개 공공기관·공기업(비공시 대상 3곳 제외)들의 올해 상반기 지역인재 채용비 율은 15.39%로 나타났다. 18%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반기 채용 때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맞추기 위해 그만큼 지역 출신 인재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기관 한 인사담당자는 "각 기관들마 다 지역인재채용 비율을 맞추기 위해 준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기관들이 NCS(국가 직무능력표준)과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 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지 역 출신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것"이라 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사학연금공단 '2018 TP YOUNG 서포터즈 6기' 발대식

사학연금공단(이사장이중흔)은지난 20일 '2018 TP YOUNG 서포터즈 6 기' 발대식(사진)을 개최했다.

지역별 총 7개팀 21명으로 구성된 6기 서포터즈는 오는 11월까지 사학연금 봉 사단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지부행사 참여, 블로그 운영 등 온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중흔 이사장은 "TP YOUNG 서포 터즈 활동이 공단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온·오프라 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전 '스튜디오큐브' 무료 개방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김 영준)은 21일 대전 엑스포공원에 위치 한 스튜디오큐브 일부 시설을 무료 개방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시설은 ▲법정 ▲교 도소 ▲병원 등 특수시설을 갖춘 3305㎡ (1000평) 규모의 '스튜디오F'로,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

전국에 있는 중・고교 및 대학교 방송영 상콘텐츠 관련 학과, 동아리 등에 속한 예비 창작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통해 해 당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방송영상 분야에 관심 있는 중·고등 학생을 위해 1일 1회 최대 40명 규모로 스튜디오큐브 주요 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단체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김영준 원장은 "스튜디오큐브는 드라 마, 영화 등 촬영을 위한 전문 제작시설 이라 그동안 일반인 접근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개방을 계기로 향 후 더 많은 시민들과 예비 창작자들이 함 께하는 참여적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 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개관한 스튜디오큐 브는 대형 스튜디오와 야외 촬영장, 미술 센터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방송영 상콘텐츠 제작지원 시설로, 드라마 '미 스터 션샤인'과 올 연말 개봉할 영화 '창 궐' 등을 촬영한 곳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포도·오미자차 등 한국식품 말레이시아인 입맛 잡는다

aT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아프로' 현지 홍보 활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이병 호)는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대학 교 재학생들을 서포터즈로 선정하고 농식 품 청년 해외개척단 '아프로' (AFLO) 단 원들과 한국식품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 다고 21일 밝혔다.

아프로 단원들은 시장다변화를 위해 매 칭 된 국내 수출업체의 수출 전략품목에 대해 100여명의 현지 청년 등 소비자를 대 상으로 시음과 시식을 통한 맛 평가, 구매 의향 등 설문을 진행해 현지 젊은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들은 신선포도, 국내산 과실음료, 유 자·오미자차 등 구체적인 의견 청취 결과 를 현지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재가공한 뒤 국내 수출업체와 공유해 현지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이날 한국과 말레이시아 청년 간 지 속가능한 홍보 네트워크 마련을 위해 현지 젊은이 20명을 말레이시아 K-Food 서포

터즈로 구성해 발대식을 개최하기도 했 다. 서포터즈들은 향후 온 · 오프라인을 활 용해 한국 농식품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aT 백진석 식품수출이사는 "한국 식품 을 알리는 목적으로 나간 한국의 청년 해 외개척단과 한국 식품에 관심 있는 말레이 시아 청년들이 만나 한국식품의 수출이 더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젊은이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한국 농식품 수출시장 에 성장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전KDN, 국제비즈니스대상 웹사이트분야 동상 수상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2018 국 제비즈니스대상'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Stevie Awards·IBA) 웹사이트 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제비즈니스대상'은 전 세계 기업들 는 평가다. 을 대상으로 한해 동안 펼친 경영활동을 15개 부문에 걸쳐서 금상, 은상, 동상으 로 평가하는 국제대회다. 비즈니스 분야 의 오스카상으로 평가받을 만큼 세계적 으로 권위 있는 대회로 알려져있다.

이번 국제비즈니스대상에는 74개국 3900여편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한전 KDN은 본 대회에 대외 홈페이지를 출 품하여 웹사이트 분야(Website Award) 동상을 차지했다. 세련되고 명 확한 디자인과 에너지ICT 리더인 KDN 만의 기술과 제품에 대한 풍부한 정보제 공, 체계화 된 메뉴와 콘텐츠 구성 등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우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소통창구인 만큼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에너지ICT 전문공기업으 로서 전력과 에너지신사업 경쟁력 강화 를 지원하고 국내・외 고객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MOTAL PHAIR!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주) 씨 엠 테 크 복 합 방 수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